오바마,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검토

'사이버 테러' 후속 대응…법적 논란에 정치·외교적 부담 실행 미지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소니 픽처스 해킹사건에 따른 후속대응으로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공식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 다시 오를지 주목된다.

워싱턴 외교소식통들은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북한에 대한 다양한 '응징' 옵션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사이버 테러'의 법적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되는데다가, 정치·외교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어 실제로 재지정 결정을 내릴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보복 '상징성'…실효성은 별로 없어=북한은 1987년 11월 김현희가 연루된 대한항공(KAL)기 폭파사건으로 이듬해 1월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랐으나, 20년 만인 2008년 10월 조지 W. 부시 행정부에 의해 삭제됐다.

미국 국무부가 밝힌 테러지원국 지정 요건은 ▲테러조직에 대한 기획·훈련·수송·물질 지원 ▲직·간접적 금융 지원 ▲테러조직의 활동을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다른 형태의 협력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이나 사례를 의미하는지는 적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국무장관이 이 같은 요건이 충족하는지에 대한 검토절차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 같은 요건이 충족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무역, 투자, 원조 면에서 미국의 제재를 받게 된다. 이중용도 기술과 무기 판매와 관련한 수출통제를 받고 정상교역국 지정과 특혜관세제도, 투자관련 세금 부과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식량·의료·에너지 원조가 금지되고 미국과 교역에 따른 금융지원이 제한된다.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지원이나 신용공여도 어려워진다. 그러나 이미 북한은 유엔과 다자, 양자 차원에서 광범위하고 강도 높은 제재를 받는데다가, 미국과의 수출규모 자체가 미미하고 미국 정부 차원의 원조도 받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이나 해제는 '실효성'보다는 '상징성'이 크다는 게 외교소식통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정치적 요인이 좌우…"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워싱턴 외교가에서는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가 단순한 법률 검토 차원을 넘어 고도의 정치적 행위에 해당한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부시 행정부가 2008년 10월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한 것 자체가 자의적인 정치적 결정이었다는 게 외교소식통들의 얘기다.

사실 북한이 테러지원국 해제를 요청한 것은 2000년대 초반부터였다. 당시로써는 북한이 주목할만한 테러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미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2007년 2·13 합의가 체결될 이후 미국은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핵프로그램 신고와 연계시키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북핵 협상에서 외교적 성과를 거둬보려는 정치적 판단이 작용했음은 물론이다. 이후 2010년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 때 테러지원국 재지정 요구가 제기됐으나 북한과의 협상 여지를 남겨보려는 오바마 행정부는 "테러의 개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했다.

◇재지정시 북한과의 '관계단절'…6자회담 재개도 차질=이번에도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법률적 측면보다는 정치·외교적 고려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외교소식통들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응징'의 메시지를 줄 수는 있으나 실효적 제재 효과가 별로 없는데다 추후 외교적으로 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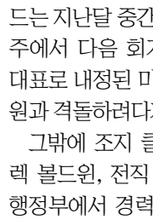
무엇보다도 북·미 사이에 대화의 가능성이 차단되면서 사실상 '관계 단절'의 효과를 가져올 우려가 많다. 물밑 교섭 움직임이 전개돼온 북핵 6자회담도 중대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북한 김정은 정권이 태도를 바꾸기보다는 북한 내부의 강경파 입지를 키워 도발이나 물리적 충돌 위기를 고조시킬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바마 행정부로서는 섣불리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국내외적인 파장을 두루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판단을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합뉴스

필리핀 경찰 무기 봉인 필리핀 경찰이 성탄과 신년 연휴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무분별한 총기 발사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경찰의 무기를 봉인하기로 한 가운데 22일(현지시각) 필리핀 메트로 마닐라 타기그에서 필리핀 경찰 소속 여경들이 무기를 테이프로 봉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美 연예인 ➡ 정치인 누가 있나

배우 졸리 도전 시사
레이건 전 대통령
상원의원 프레드 톰슨



미국 할리우드의 특급 여배우인 앤젤리나 졸리(39·사진)가 정계 진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미국 연예인의 정치 도전사가 주목을 받는다.

배우, 영화감독, 인도주의자, 유엔 난민기구(UNHCR) 특별대사로서 활발하게 사회 활동 중인 졸리는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NBC 방송의 유명 앵커 톰 브로코와의 인터뷰에서 정계 진출 가능성을 거론해 시선을 끌었다.

졸리는 앞서 잡지 '배너티 페어' 12월호, 영국 ITV와의 인터뷰에서도 뭔가 진정한 차이를 만들 수 있다면 공직에 진출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 일간지 USA 투데이는 21일(현지시간) 주말판 기사에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과 그간 사례를 종합해 졸리 등 연예인의 정계 진출 가능성을 타진했다.

신문은 직무 능력보다 잦은 미디어 노출로 이미 연예인과 비슷한 이미지를 유권자에게 각인시킨 정치인이 적지 않기 때문에 졸리가 정계에 진출하더라도 '지명도 높은' 연예인이라는 이점을 누릴 수 없다고 분석했다.

연예인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해 성공을 거둔 대표적인 인물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다.

할리우드 B급 영화에 주로 출연한 레이건 전 대통령은 공화당 간판으로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거쳐 대통령에 올라 미국 일극 체제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는 재임 시절 경제 실패에도 무력으로 미국의 힘을 전 세계에 과시한 덕분에 보수주의 상징으로 꼽힌다.

배우이자 변호사로 9년간 테네시주 연방상원의원을 지낸 프레드 톰슨, 팝 가수 겸 코미디언으로 가수 셰어와 세기의 커플을 이룬 뒤 팜 스프링스 시장을 거쳐 연방 하원의원을 지낸 소니 보노, 배우 출신 연방하원의원 프레드 그랜디, 액션 배우로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오른 아널드 슈워제네거, 배우이자 명감독으로 카멜 시장에 선출된 클린트 이스트우드 등 모두 공화당 소속으로 선거에 출마했다.

민주당 간판으로 나선 연예인은 앨 프랭큰 현 연방 상원의원(미네소타)과 오디션 프로그램 '아메리칸 아이돌'의 스타로 올해 중간 선거에서 노스캐롤라이나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 나섰다가 낙선한 클레이 에이켄 정도다.

민주당 성향인 미녀 배우 애슐리 저드는 지난달 중간 선거 때 고향 켄터키주에서 다음 회기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로 내정된 미치 매코널 현 상원의원과 격돌하려다가 뜻을 접었다.

그밖에 조지 클루니, 벤 애플렉, 알렉 볼드윈, 전직 배우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경력을 쌓은 칼 펜, 액션 배우 스티븐 시걸 등이 정계 진출 가능성이 큰 연예인으로 꼽힌다. /연합뉴스

흑인 사망 여파?…美 경찰 피격 잇따라

미국 경찰이 체포 과정에서 비무장 흑인을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한 뒤 경찰관을 공격하는 사건이 미국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CNN방송에 따르면 지난 20일(현지시간) 남부 플로리다주 파이넬러스 카운티 타폰 스프링스의 주택가에서 경찰관 1명이 총에 맞아 사망했다.

이날 총격은 탬파에서 약 40km 떨어진 타폰 스프링스의 아파트 단지에서 오전 3시께 일어났다고 USA 투데이는 전했다. 숨진 경찰관은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변을 당했다.

용의자는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경찰관 1명을 사살하고서 차량으로 도주를 시도하다가 붙잡혀 현재 구금 중이다.

보안관실과 현지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나중에 기자회견을 통해 범행 동기 등 자세한 사항을 공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일 뉴욕 브루클린의 베드퍼드-스타이베선트 지역에서는 이스마일 브린슬리라는 이름의 28세 흑인 남성이 정차한 순찰차 안에 있던 경찰관 2명에게 접근해 총격을 가해 모두 숨지게 했다.

인근에 숨어 있던 브린슬리는 순찰차 조수석 창가에 기습적으로 다가가 경찰관 2명의 머리와 상반신에 여러 발의 총을 쐈으며 이들 경찰관은 총을 꺼낼 겨를도 없었다.

브린슬리는 총격 직후 도주했다가 경찰들이 접근해 오자 지하철역 안에서 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연합뉴스

영화 '인터뷰' 무료 배포

김정은 암살 다룬 영화…소니, 자사 온라인 배급망 통해

미국이 북한 소행이라고 발표한 컴퓨터 해킹 공격으로 큰 피해를 본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이하 소니 영화사)가 문제의 영화 '인터뷰'를 자사 온라인 배급망을 통해 무료 배포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포스트는 익명 소식통들을 인용해 소니 영화사가 자사 온라인 배급사 '크래클'을 통해 이 영화를 무료로 공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소니 영화사는 성탄절인 오는 25일에 맞춰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한 암살 음모를 다룬 코미디영화 '인터뷰'를 개봉할 예정이었지만,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이나 관객에 대해서도 테러 위협이 제기되자 개봉을 취소했다.

이에 대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19일 휴가지인 하와이로 출발하기 직전에 진행된 송년 기자회견에서 소니 영화사의 개봉 취소 결정에 대해 "실수했다"고 비판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나오자 미디어업계 관계자들은 물론 외교안보 전문가들도 소니 영화사가 어떻게든 '인터뷰'를 공개해야 한다는 적지 않은 압력을 받았을 것이라고 전망해 왔다.

소니 영화사의 마이클 린턴 최고경영자(CEO)는 CNN에 출연해 "우리는 (북한의 테러 위협에) 겁먹거나 굴복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영화 '인터뷰'를 어떤 식으로든 방영할 계획이고 다양한 선택방안을 두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소니 고문변호사 데이비드 보이스도 이날 NBC 일요 시사 대담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소니는 인터뷰 개봉을 연기했을 뿐이고 배포 방법을 찾고 있다"면서 "어떤 방식이 될지 몰라도 영화는 배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이스는 또 "해킹 사태는 소니의 보안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의 문제"라면서 정부가 문제 해결을 주도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북한에 '비례적 대응'을 하겠다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이 "여러 측면에서 도움이 됐다"면서도 "피해자를 비난하지 않고, 좀 더 일찍 나서줬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연합뉴스